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정체성 협상을 중심으로*

김은희[†]·김영순[‡]

인하대학교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경험을 정체성 협상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정체성 협상이란 개인이 타자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자기이해, 문화와 언어의 차이 넘기, 엄마의 아픔과 나의 외로움을 인정하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기의 4개 범주에서 정체성 협상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자기 경험에 대해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주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류 사회 구성원들이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주체로서 대하는 타자지향적 자세가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이주경험, 정체성 협상, 타자지향성

I. 서론

전지구적으로 심화되는 세계화는 초국적 이주를 추동시켜 해당 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추세는 한국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한국은 체류 외국인 비율

* 이 연구는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이 전체 국민의 5%대(법무부, 2021)¹⁾가 되어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주민 구성원은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이주민 2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3만 명(통일부, 2021) 시대가 되면서 2,700여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먼저 온 통일’, ‘미래통일세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후 한국으로 이주한 자녀들은 정작 자신을 ‘통일과는 관계없는 중국 사람’, ‘북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어 한국사회가 그들에게 갖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남현옥, 2017; 신현옥, 2011).

그동안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탈북청소년과 이주민 1세대 담론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대중들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존재와 실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오인수, 노은희, 2019; 이기영, 김민경, 2015). 탈북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언어와 문화, 정체성 등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단일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소통과 통합의 장벽으로 작용하여 그들이 처한 사태 자체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탈북청소년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맥락이 간과되고 있다(양영자, 2016). 따라서 탈북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붙여지는 ‘탈북청소년’의 이름 부여하기에서 탈피하여 ‘탈북여성의 자녀로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해가 요구된다.

정체성은 자신을 둘러싼 문화적 체계들 속에서 재현되거나 다뤄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형성되며 끊임없이 변형되는데(Hall, 1992) 경계 지대를 넘는 장소의 변화, 사회문화적 경계의 변화가 정체성의 변화를 요청한다(이은혜, 2018).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법적 지위 변화, 가족의 해체와 형성, 돌봄과 학업의 공백, 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 등 다른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맥락에서 갈등과 조화를 이루며 정체성을 변화시켜간다(조해리, 2015).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이주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시켜 가는가를 정체성 협상 측면에서 이해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6년 3.96%에서 2019년 4.87%로 매년 증가하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3.93%로 감소하였다. 미등록체류외국인 39만 명까지 포함하면 5%를 넘어선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회적 맥락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탈북한 여성이 중국 체류 중에 중국인 남성과의 혼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성장과정 중에 어머니의 강제송환을 목격하거나 어머니의 불법체류 발각에 연루된 경우 정신적 외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원웅 외, 2012; 피난처, 2011). 불안정한 신분을 가진 어머니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몸소 경험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어머니의 탈북과정을 출생 배경으로 지닌 존재로서 정체성 혼란과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안고 한국 사회에 진입한다(양영자, 2016). 이들은 입국 초기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과 또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들이 경험하는 언어적 상이성은 초기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 학습 성취와 또래 관계 맺기에 있어 방해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윤나, 2014; 김명선, 2015). 언어 적응은 의사소통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되며 자신의 내·외적 환경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어 적응 측면에서의 정체성 이해가 중요하다(양혜린 외, 2017).

탈북여성 자녀로서의 삶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연보라, 김경근, 2017).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에게 증오와 두려움을 느끼며 자라고, 조부모와 친척들로부터 학대와 폭력, 방임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아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다(오인수, 노은희, 2019). 또한 열악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엄마의 상황은 엄마와 자녀의 물리적 공유 시간을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하여 가족 관계의 소원함으로 나타난다(정주영, 박정란, 2016). 가족이 중요한 사회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이주 과정에서 가정해체와 재결합이 반복되는 가족 불안정성과 자신에 대한 이해의 혼란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법적으로는 탈북민이 아니지만 '탈북민의 테두리'에 포함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해서는 '중국 애들'로, 한국인들에게는 '어차피 중국으로 돌아갈 아이들'로 여겨짐으로써(남현욱, 2017; 신현욱, 2011)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타자가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과 주체성이 감춰진 채 타인들에 의해 '누구라 여겨지는'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마주하는 현실이다(신현욱, 2011). 타자화는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그들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배제하고 통계와 현황 등 객

관적 자료를 근거로 접근하게 한다(김영진, 2015).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분단 역사의 현재이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존재하는 공동존재²⁾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공동존재인 이들의 삶의 방식 가치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타자 이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생과 성장, 한국에서의 낯선 언어환경과 친구 관계, 탈북여성 자녀로서의 삶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경험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이주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정립해 가는가를 중심으로 정체성 협상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정체성과 정체성 협상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정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 다양한 경계 경험, 집단 소속감,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자들은 이주경험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주 전(前)과정의 맥락,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의미있는 사회적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이주와 자기 인식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주자 개인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주목하지 않는 접근은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들의 주체성을 희미하게 하는 한계를 드러낸다(김송렬, 장안서, 2021).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의 문제를 포함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왜 그렇게 확립했는지를 아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며(Nieto, 2016: 268) 타인의 존재를 있음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자지향적 자세를 갖추게 한다. 현대이론에서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유동적, 다원적, 특수적, 복수적으로 해석되며, 사회적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변화되며 재구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Sarup, 1996). 또한 정체성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성장하는 개인의 주체적인 삶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영순, 2020). 정체성은 인간을 둘러싼 문화적 체계들 속에서 재현되거나 다뤄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형성되

2) '공동존재'는 하이데거의 타자 철학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공동존재로서의 타인은 연역적, 귀납적 결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 삶에 늘 따라다니고, 결코 추상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의미를 가진 존재를 말한다(김형효, 2000: 120).

며 끊임없이 변형되는 것으로(Hall, 1992) 경계 지대를 넘는 장소의 변화, 사회문화적 경계의 변화가 정체성의 변화를 요청한다(이은혜, 2018). 결국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규정과 타자규정 과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Giddens, 1991/1995).

인간은 언어문화적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터득한 것을 종합하고 재해석하여 새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지닌 적극적 행위자이다(Nieto, 2016). 특히 청소년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를 단순하게 구체화하여 적용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하는 요구에 저항한다(Yon, 2000: 143). 민족적 정체성은 청소년이 자신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대변하지는 않으며(Heath & McLaughlin, 1993) 청소년에게 주된 정체성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부심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체성의 부가적인 면일 뿐이다(Nieto, 2016: 271 재인용). Yon(2000)에 의하면 “문화는 포착 불가능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정체성은 새롭고 창의적이며 예측 불가능하다. 김기영(2021) 역시 청소년들이 하나의 국가나 민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귀속시키기보다 다중적이며 유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정아(2014)는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회 질서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수많은 경계에 부딪히고 이를 극복해가는 능동적인 정체성 재구성의 과정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주민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체성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주류사회가 요구하는 단일화된 민족정체성에서 벗어나 역동적으로 변화되며 재구성됨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장배경을 가진 사람이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충돌과 갈등이 발생한다. 이때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하게 되는데 개인의 목표를 향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교차점을 정체성 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Swann, 1987).

본 연구에서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이주 과정과 이주 후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갈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정체성 협상의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입국 이후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느끼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타자들과 관계 맺으며 세상을 이해한다. 이들은 다중 경계를 경험한 전환기적 존재이며 이들의 경계 경험은 언어, 문화, 정체성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 북한과 중국, 한국과 중국의 다층적 이해가 교차하는 의미망에 놓여 있다(양영자, 2015). 본 연구에서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자기이해, 언어문화 적응,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정체성 협상이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를 연구참여자

들의 경험을 통해 도출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방법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의해 제한된 범위, 즉 경계 지어진 체계에 대한 연구로(Stake, 1995)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제를 다룰 때 자주 사용되며(조흥식 외, 2015) 개별적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기술과 분석을 하는 연구방법이다(Merriam, 1998). 본 연구는 중국에서 출생하여 자란 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경험을 사례로 정의하고 특수한 맥락에서 쟁점(Stake, 1995)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주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참여자들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나며 기록했던 관찰일지, 메모 등을 활용하였다.³⁾ 주요 질문 내용은 이주 전 중국에서의 성장 경험과 가족 이야기, 이주 배경과 과정, 이주 후 생활, 의미 있는 사건과 사람, 가족과 친구 관계, 한국 생활 중 어려웠던 일과 극복 경험, 학업과 진로 계획 등이다. 심층면담은 2020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별로 1-2회,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다. 당일에 녹음내용을 전사하여 현장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전사 후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 2차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이론적 포화상태에 도달했을 때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자료 분석은 주요주제를 중심으로 줄긋기와 메모 작업을 하고 초기 코딩을 통해 반복되는 내용과 의미에 이름을 부여하였다. 초기 코딩 작업에서 나타난 범주와 원자료를 비교하며 중요한 부분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분류하고 세부 의미에 범주를 부여하는 귀납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요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참여자들의 중국에서의 성장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에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적 맥락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며 정체성

3)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다녔던 중학교에서 2년간 한국어 강사로, 학교 근처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교육봉사를 하며 학생들을 만나왔다. 한국어 강사와 교육봉사 활동은 학습 이외에도 가족,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 진학과 진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현장이 되었다.

협상을 중심으로 이주경험의 중심의미를 도출하였다. 자기이해, 언어문화 적응,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서 연구참여자별 유사한 경험과 맥락을 비교하고,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차이점을 비교하여 중심 의미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과 절차 과정에 대해 질적연구 전문가의 지도를 거쳐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동료 검토과정을 순환적으로 거치며 분석과 해석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2. 연구참여자

심층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한국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부모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하였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8명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4세 이전에 입국하여 중국에서의 생활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3명의 사례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5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엄마와 오랫동안 분리되어 지내다가 7살 때 브로커에게 맡겨져 1년 동안 여러 나라를 거친 후 한국에 오게 되었다. 현재 새아빠와 함께 살고 있으며 7살 동생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부모님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2, 3, 4는 엄마와 함께 동반입국한 경우로 하나원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2와 4는 중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을 받으며 자라왔는데 가족을 구타하는 아빠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엄마의 존재를 모르고 지냈을 만큼 엄마와 분리되어 지내왔다. 현재는 중국인 새아빠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으나 부모님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평일에는 혼자 살고 있어 부모와 심리적 거리감이 많다. 연구참여자 5는 학교생활과 친구 사귀는 것을 유독 어려워하였고, 어린 동생을 돌보느라 학원과 지역돌봄센터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구분	성별	나이	입국 나이	한국 거주	학년(4)	입국 형태	동거가족
연구참여자 1	남	18	8세	11년	고1	초청	새아버지(한족), 어머니, 동생
연구참여자 2	여	17	7세	11년	고1	동반	어머니, 오빠, 동생
연구참여자 3	여	16	13세	4년	중3	동반	새아버지(한족), 어머니
연구참여자 4	여	14	13세	2년	중1	동반	어머니, 동생
연구참여자 5	여	14	12세	3년	초5	초청	아버지(한족), 어머니, 동생

3.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며 연구자가 자료수집의 핵심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더욱 윤리에 민감해야 한다(김영순 외 2018). 연구자는 가족, 탈북, 정체성이란 사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참여자의 정서적 반응을 염두에 두고 민감한 자세로 임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IRB 준비과정에서 연구설명서와 동의서를 보호자와 학생용으로 각각 작성하여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안내하였다.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승인을 받았으며⁵⁾ 보호자와 자녀의 자발적 참여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였다.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면접 내용 보호를 위해 연구참여자 번호로 표시할 것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연구참여를 중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였고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IV.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주경험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성찰하며 정체성 협상을 이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9개의 하위범주를 추출하고 같은 의미범주를 묶어 4개의 중심주제를 생성하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경험에서 도출한 정체성 협상의 의미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의 의미

중심의미	하위의미
나를 이해하는 여정	두 나라를 품은 나
	탈북민의 아들 딸
	현재와 미래의 나를 만남
문화와 언어의 차이 넘기	학교문화 차이의 어려움과 활용
	의사소통 한계에 대처하기
엄마의 아픔과 나의 외로움을 인정하기	엄마의 삶을 이해하기
	다시 또 홀로서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기	탈북-중국 친구의 경계에서
	타자화 시선에 거리두기

- 4)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나이에 비해 학년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4와 8은 입국 당시 한국어 구사 능력이 현저히 낮아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배정되었다.
- 5)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서에서 제시한 수정사항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였고 2020년 7월 2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는 200519-2A이다.

1. 나를 이해하는 여정

1) 두 나라를 품은 나

연구참여자들은 ‘탈북청소년’이라는 이름과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중국인이 되었지만 이주 후에는 한국에 적(籍)을 두고 살아가면서 혼종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국사회가 이들에게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는 달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뿌리가 있는 중국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 저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품을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10여 년을 지낸 연구참여자 1, 2와 달리 청소년기에 한국에 이주하여 정착 기간이 짧은 연구참여자 3, 4, 5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소속감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아직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중간? 뭐 경기 같은 거 보면 아빠는 중국 응원하는데 난 응원을 못해주겠어요. 또 한국에는 살고 있지만 다 버리지는 못하겠어요. 가족이랑 친구가 다 저기(중국)에 있으니까.”(연구참여자 1)

“중국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아는 애들(중국 친구들) 다 그래요.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연구참여자 4)

내가 누구인지,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는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시간과 상관 없다는 연구참여자의 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의 정체성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그건 분석할 수가 없어요. 피는 한국 피고 국적은 여기이고. 나는 하나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영순 외, 2018). 이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각 개인이 의미를 부여하는 바에 따라 유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탈북민의 아들 딸

연구참여자들은 중국-한국인의 정체성 외에 ‘탈북민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둠을 보호막 삼아 험난한 중국 국경을 넘는 경험을 하며 비로소 ‘탈북민’인 엄마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엄마의 탈북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엄마의 탈북은 생존을 위한 당연한 것이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다. 그저 안전한 곳에서 살기 위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온 수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일 뿐이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죠, 이주했다고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힘들어서 온 것 뿐인데 왜 신기하게 생각하지? 엄마가 북한사람이라는 거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다른 게 없으니까요.”(연구참여자 2)

“한국 오는 거 물어보지 않았지만 알고는 있었어요. 엄마가 원래 북한 사람이잖아요. 북한에는.... 갈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알고 말은 안 했어요. 엄마가 한국에서 더 잘 사니까 저는 좋아요.”(연구참여자 4)

3) 현재와 미래의 나를 만남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서 지냈던 시절을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금 여기에서 여느 청소년과 같이 학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한 가정환경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진로에 대한 희망을 품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있는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중국 대학에 진학하거나, 중국과 관련하여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등 영토의 경계를 넘어서는 확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지금 학교 홍보하고 있어요. 위클래스 홍보. 시나리오도 쓰고 촬영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연극과에서 연기도 해봤어요. 예술쪽에는 재능이 있어서.” (연구참여자 1)

“몇 개월 전에는 중국에 가고 싶었는데 아직 한국말도 많이 배우지 않아서 그냥 가면 아까워요. 중국어 계속 할 수 있는 외교에 가고 싶어요. 대학은 중국으로 가서 연기를 전공할 거예요.” (연구참여자 4).

2. 문화와 언어의 차이 넘기

1) 학교문화 차이의 어려움과 활용

연구참여자들은 이주한 국가의 교육체계가 모국과 다를 때 학교 적응과 학습 성취에서 어려움을 겪는다(양혜린 외, 2017). 교과 내용을 한국어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주 과정에서 학습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기본 교과 과정을 배우지 못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연구참여자 1과 2는 초등학교 입학 당시 한국어를 하지 못하여 기초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났고 이는 고등학교 진학에도 걸림돌이 되었다. 새로운 환경은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연구참여자 3, 4, 5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에서의 학교생활이 도움이 되어 특정 교과 학습⁶⁾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긍정적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시험 위주의 수업, 서술형 시험, 방과 후 학원 공부 등 빡빡하고 힘든 생활을 하다 오니 한국 생활이 더 수월하였고 일부 특정 과목에서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글 해독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다수의 과목에서는 여전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 와서 음악 수업 처음 들었어요. 중국은 다 서술형이에요. 객관식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다 한국 오니까 공부가 쉬워요. 국어랑 사회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수학은 너무 쉬워요. 수학은 잘 해요.” (연구참여자 5)

2) 의사소통 한계에 대처하기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언어 장벽에 대한 대응 방식은 입국 시기와 한국어 구사능력,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서툰 한국어로 인해 놀림을 받고, 교과 학습을 따라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놀림은 줄지만 초등학교 때의 부정적 경험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로 탈북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학생 시기에 입국한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어는 절벽과 같이 느껴진다. 아무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병어리가 되는 기분을 느끼기

6)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수학 교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는데 언어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중국 교과 과정이 한국보다 선행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도 한다. ‘할 말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라는 하소연이 담겨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의 성향과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도움 요청하기, 갈등상황 회피하기, 한국어 적극적으로 배우기, 중국어로 친구 사귀기 등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학교 공부 따라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 같은데 초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1)
“처음에 그냥 말이 언어가 잘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무서웠어요. 나를 부르고 시킬까봐. 한국에서 살아야 하니까 살기 위해 내가 살아야 해요. 꼭 한국어를 알아야 해요. 안 되겠다. 중국말만 하면 너무 느려요. 말 못해요. 지금은 한국말이 빠르게 늘었어요.” (연구참여자 3)

3. 엄마의 아픔과 나의 외로움을 인정하기

1) 엄마의 삶을 이해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엄마의 탈북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엄마의 선택과 그로 인해 주어진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다. 갑작스런 이주로 인해 엄마에게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한국에 오기까지 엄마가 겪었던 험한 시간을 이해함으로써 엄마에게서 받은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였다.

“여기는 엄마가 있는 곳? 엄마가 중국보다 여기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보여요. 일 많이 하는 건 비슷한데 여기서 더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편해보이니까 좋지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 오길 잘한 거 같아요. 엄마가 한국에 데려왔을 때 처음에는 화나고 싫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없어요.” (연구참여자 4)

2) 다시 또 홀로서기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 온 이후에도 엄마의 부재

는 계속되었다. 타지에서서의 근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장시간 근무로 인해 엄마의 빈자리를 경험한다. 엄마와의 물리적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게 되면서 이들은 또다시 홀로서기를 맞이하게 된다. 자녀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3은 중국에서부터 엄마의 부재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계속되는 '엄마 없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엄마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도 우리 엄마 한 달 동안 출장가면 보고 싶은 느낌 없어요. 엄마가 다시 오면 ‘어 엄마 왔네’ 그냥 그런 느낌. 엄마 보고 싶었어? 물어보면 안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도 알아요. 내가 안 보고 싶어하는 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도록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아요. 나는 엄마가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특히 한국에서 만난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또래 집단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스스로 진로를 준비하는 홀로서기의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

“○○지역에서 밤 보낼 때도 많고 집에 잘 안 들어가요. 부모님은 몰라요. 그냥 뭐..... 나한테는 관심없어요. 동생한테만 관심있고 저는 존재감이 없지요. 순해보이니까 이상한 짓 안 할 것 같다고 하세요. 원하는 것은 많은데 엄마가 다 싫어하니까 예술쪽으로는 아무 과라도 괜찮으니까 해보려고요. 하다보면 할 수는 있겠지요.” (연구참여자 1)

4. 우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기

1) 탈북-중국 친구의 경계에서

한국 진입 후 '탈북 친구들'과 '중국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입국 배경에 따라 두 공동체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다르게 나타낸다. 그들 스스로 출생지를 구분하여 '중국 애들', '북한 애들'이라고 부르며 북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주 연령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7세 전후로 한국에 온 연구참여자들은 면담 중에 '탈북 친구'와 '일반 한국 친구'로 나누어 이야기하였으나 초등학교 시기를 중국에서 보내고 청소년기에 온 연구참여자들은 '중국 친구'와 '북한 애들'로 부르며

소속감을 다르게 표현하였다. 이들은 엄마의 탈북과 중국에서의 생활, 자신의 이주와 하나 된 생활, 한국 생활 정착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서로 지지하며 편이 되어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탈북 배경이 있는 친구를 ‘우리’,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그들’로 구분하며 경계 허물기와 유지의 전략으로 또래 관계에서 안정과 인정을 찾아간다.

“애들한테 평소 얘기하지 못한 것들, 탈북 애들한테는 어차피 일상이니까 얘기하면 약간 어? 이렇게 특별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 잘 맞더라고요. 가족들도 비슷비슷하고 이러니까요.”(연구참여자 2)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랑 상관 없어요. 우린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제가 아는 중국 친구들은 다 나처럼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도 혼자 지냈어요. 다른 애들이랑은 할 말이 없어요. 중국말로 하면 하고 싶은 얘기 많았어요. 센터에서도 중국말 할 줄 아는 애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요. 북한 애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공부하는 것도요.”(연구참여자 4)

2) 타자화 시선에 거리두기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특별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탈북학생 동아리와 원적 학교 수업시간에 따로 나와 한국어 수업을 받는 등 다른 친구들과는 구별된 활동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다름’이 강조되었고 어려운 가정형편, 힘겨운 이주스토리가 이들을 특별 대상으로 여기게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들을 ‘다름’의 시선으로 보는 타자화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굳이 차이를 드러내야 하나요?’라는 물음에는 주체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탈북청소년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이주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힘들어서 온 거니까. 남들 눈에는 특별하고 신기해 보이겠죠. 그냥 넘어와서 잘 지내는 거니까. 왜 굳이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지? 북한에서 온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른 게 없으니까 한 번도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연구참여자 2)

V. 결론

지난 10년 동안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와 학교적응, 심리정서적 안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한국에 온 자녀들과는 달리 중국 출생 자녀들은 입국 초기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언어 장벽은 또래맺기, 학습과 진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 입국 이후에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청소년기 시절에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경험을 토대로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는 이주민 자녀들을 한국 사회에 사는 한 개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탈북청소년', '중국 사람', '중도입국청소년' 등의 특성을 가진 집단의 전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 범주화는 소수집단에 속한 개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여 개인을 이해하고 대상화하여 다른 집단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홍종열, 2012). 집단의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에 앞서게 될 때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과 같은 좌절과 실패는 혼란과 부적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경험을 좌절과 원망, 상실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문제적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뿌리가 되는 과거를 수용하고,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성찰하여 성장하고 있었다. 또한 영토의 경계에 갇혀있지 않고 북한과 중국, 한국 세 나라에 '엄마의 고향', '아픔이 있지만 나의 뿌리가 있는 곳', '엄마와 함께 살아갈 희망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국가정체성은 이주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비교적 어린 시절에 이주한 자녀일수록 한국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북한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기에 이주한 자녀들은 자신을 중국인으로 이해하고 엄마의 고향인 북한에 대해서 제3의 나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인으로, 또 한국

에 살고 있는 중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생국과 성장국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정체성에 귀속시키기보다는 ‘중국인이면서 한국인’, ‘한국인이면서 중국인’으로 다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체성은 사건과 행위를 기점으로 명료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이들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방향과 갈등을 특정 집단 소수자들의 문제와 부적응으로 담론화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기는 것은 이들을 타자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사회적 차별이 청소년의 정체성과 관련이 없다고 밝힌 연구(박진우·장재홍, 2014)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탈북’으로 규정지어지는 것 자체가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차별을 느끼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전경숙 외, 2010). 이들은 탈북민 자녀로서의 삶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탈북민이라는 담론으로 씌워지는 타자화의 시각에 저항하면서도 자신의 뿌리가 된 ‘탈북민 자녀’로서의 삶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협상을 하고 있다. 주변인들의 다문화 인식은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영순 외, 2020). 이들은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인정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수용과 거절, 인정과 배제 등을 경험하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 간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특정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선택하는 과정을 정체성 협상이라 할 수 있다.

이주 사회로의 적응은 주류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삶의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드러난 노력과 전략적 행동을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정체성 협상의 의미를 연구한 본 연구는 이주민 자녀 세대에 대한 다양성과 상호이해의 개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영.(2021). 중도입국청소년의 경계경험과 중층적 정체성: ‘고려인’ 청소년들의 삶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3): 1-30.
- 김명선.(2015).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경험 분석. 『열린교육연구』, 23(4): 45-74.
- 김승렬·장안서.(20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동네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중국계 청소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1): 59-80.
- 김영순. (2020).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과 정체성 협상」. 성남: 북코리아.
- 김영순·김진희·강진숙·정경희·정소민·조진경·조현영·최승은·정지현·오세경·김창아·김민규·김기화·임한나.(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영순·장은영·김진석·장은숙·김창아·안진숙·정지현·윤영·최승은·정소민(2020). 「다문화 사회와 리터러시 이해」. 하남: 박이정.
- 김영순·최영은·윤희진·강현민·갈라노바 딜노자·윤희희·김정복·이영우.(2018).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 성남: 북코리아.
- 김영진.(2015). 융재성과 전재성에 연관한 마음의 제 특성-그 시론. 『현상학과 현대철학』, 65: 95-122.
- 김윤나.(2014). 제3국 비보호 탈북청소년의 인권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7(3): 21-39.
- 김형효.(2000).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 수원: 청계.
- 남현욱(2017).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우·장재홍.(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심리적인 요인. 『청소년학 연구』, 21(4): 133-154.
- 법무부.(2021).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1/subview.do>. 검색일: 2021.06.10.
- 신현욱.(201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기초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재)무지개청소년센터.
- 양영자.(2015). 한국 다문화교육의 새 지평: 역사적 소수자의 미래지향적 재현. 『교육과정연구』, 33(2): 179-205.
- 양영자.(2016).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문제: 문헌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167-190.

- 양혜린·고윤정·김옥수·박연미·이혜란.(2017).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학교사회복지」, 39권, 205-229.
- 연보라·김경근.(2017).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27(1), 1-30.
- 오인수·노은희.(2019).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맥락적 이해 및 개입전략. 「교육학연구」, 58(1), 1-31.
- 이기영·김민경.(2015). 한국거주 탈북배경청소년의 다양성에 따른 지원정책의 분석과 함의. 「동북아연구」, 30(2), 93-129.
- 이원웅·김선화·김윤태·이민자·조정현·허선행.(2012).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 상황 실태조사」. 2012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은혜.(2018). 「두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경험과 정체성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경숙·임양미·양정선·이의정.(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주영·박정란(2016).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입국 전후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8(3), 219-250.
- 조정아.(2014). 탈북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현대북한연구」, 17(1): 101-155.
- 조해리.(2015).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가정체성: 다문화 교육에의 함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JW Creswell)」. 서울: 학지사.
- 통일부.(2021). 북한이탈주민현황 <https://www.unikorea.go.kr>. (검색일: 2021.6.10.)
- 피난처.(2011). 「재중 탈북2세 아동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 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인권단체협력사업, 서울: 피난처.
- 홍종열.(2012). 유럽의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교육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30: 383-411
- Giddens, A. (1995).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 옮김. 서울: 새물결.(1991원저 발간).
- Hall, S., Held, D., & McGrew, A. G. (1992). "Modernity and its Futures". Cambridge: Polity, 273-316.

- Merriam, S. B.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Jossey-Bass Publishers, 350 Sansome St, San Francisco, CA 94104.
- Nieto. S. (2016)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김영순 외 옮김, 성남: 북코리아.
- Nieto. S. (2020). A lifetime of Language, Literacy, Identity, and Solidarity. *Literacy Research: Theory, Method, and Practice*, 69, 137-153.
- Sarup, M. (1996). *Identity, Culture and The Postmodern World*. 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Shirly Brice Heath & Milbrey McLaughlin(1993).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 Swann, W. B. (1987). Identity negotiation: where two roads me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038.
- Yon, D. A. (2000) Urban Portraits of identity: On the Problem of Knowing Culture and Identity in Intercultural Studies.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21(2), 143.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Migration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 Born in China: Focused on Identity Negotiation

Eun Hui Kim & Young Soon Kim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on the migration experience and explores identity negot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 born in China. Identity negotiation is an active and su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by which an individual reconstructs his/her identity in relation to others and the world. In this study, North Korean defectors five children born in China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case study method. The migration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 born in China includes four categories in negotiating identity: self-understanding, overcoming cultural and language differences, acknowledging mother's pain and loneliness, and crossing boundaries with others. Through their experiences, it was confirmed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 born in China were given personal meaning to their experiences in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settling, and existed as subjects seeking their place. It was suggested that the members of the mainstream society should recognize the diverse identities of middle-age immigrants and take an other-oriented attitude toward them as subjects.

*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 born in China, migration experience, identity negotiations, Other orientation

투고일: 2021.7.15 / 심사일: 2021.7.20 / 게재확정일: 2021.8.17